

# 올 설 선물 트렌드는 ‘가심비’·‘간편식’

중저가 선물세트 가장 많이 팔려  
소용량·간편식 제품 비중 증가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음은 벌써 설맞이로 들떠 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선물 마련을 위해 마음도 분주하다.

기업들은 설을 앞두고 다양한 설 선물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이 올해 설 선물을 내놓으면서 내세운 화두는 ‘가심비’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정성을 듬뿍 담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뜻이다. 또 폭 넓은 연령층을 포용하면서도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김영란법’ 개정 이후 설 선물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물세트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 이 기간 농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35.2%, 수산은 31.7%, 축산은 37.8%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계한 결과 설 선물세트 매출이 36.5%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한우(48.1%), 사과·배(41.2%), 갈치(40.7%), 자연산 송이(39.5%)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만~10만원 선물세트 매출 증가율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설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171.3%로 가장 높았고, 30만원 이상 가격대와 10만~30만원대 선물세트가 각각 60.1%와 10.7% 늘었다. 반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1.2% 줄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설 선물 판매 매출이 전년 설보다 35% 증가했다. 특히 축산(31.3%), 수산(51.3%), 농산(51.7%), 주류(22.6%) 등 작년에 주춤했던 주요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 호조세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선물세트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

로 분석했다.

식품업계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소비 양극화 심화로 올해도 중저가 카테고리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공식품 선물세트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구성으로 오랜기간 명절선물로 오랜기간 사랑받고 있다. 1~2인가구 트렌드에 발맞춰 소용량 제품도 선보이고 있으며 가정간편식(HMR) 제품들도 비중이 늘었다. 또한 최근 소비자 트렌드로 급부상한 가격 대비 심적 만족도를 중시하는 ‘가심비’에 초점을 둔 선물세트로 등장했다. /박인웅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 명절음식 조리 후 배송까지 ‘한상차림’

### | 롯데백화점 |

#### 간편 명절음식·프리미엄 상품도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 선물세트 행사를 맞아 ‘한상차림’ 상품을 선보인다.

최근 직접 조리된 제품인 가정간편식 등의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롯데백화점은 명절 맞이 ‘한상차림’ 상품을 기획했다.

‘한상차림’ 세트는 구성된 상품을 날개로 모아 사는 것보다 가격이 약 10% 저렴하다. 고객들이 상품을 수령하는 전날에 요리하고 다음날 새벽에 배송을 한다.

롯데백화점은 총 15여가지의 한상차림 상품을 선보인다. 대표상품은 ‘라운드키친7상차림 세트’로 전 세트, 나물 5종, 소갈비찜, 나박김치, 잡채, 소고기뭇국으로 구성됐다.

완자, 꼬치산적 등 8가지 전으로 구성된 ‘전 세트 1호’와 ‘소갈비찜 1호’ 등도 마련했다.

‘한상차림’ 세트는 롯데백화점 식품매장과 온라인몰인 ‘엘롯데’에서 오는 13일까지 주문 가능하다. 상품 수령은 15일 전까지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다. 주문한 제품은 고객들의 집으로 직접 배송해준다.

진소현 롯데백화점 식품부문 바이어는 “설은 온 가족이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하는 대명절이긴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식사도 간소화 되고 음식 또한 직접 요리보다는 완성된 요리를 주문하는 성향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롯데백화점은 고객들에게 편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백화점 최초로 ‘한상차림’ 세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프리미엄 상품도 내놓았다. 프리미엄급 대표 상품으로는 ‘L-No.9’ 세트가 있다. 이 세트는 ‘1++ 등급(마블스코어9)’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No.9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다. 등심, 안심·채끝 등 6.5kg을 130만원에 100세트 한정으로 판다. 울릉쇠소 등심 등 총 4.2kg을 200세트 한정으로 95만원에 파는 ‘울릉쇠소 명품세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명인명장이 만든 상품군도 있다.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는 참조기 10미를 250만원에 파는 ‘영광 범성포 굴비세트 황제’, 토판염 구별죽염간장 500ml와 토판염 구별죽염간장 자연송이 장아찌 등을 85만원에 구성한 ‘기순도 토판염 구별죽염 명품 특선1호’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라운드키친7 상차림세트 1호.

/롯데백화점

## 1·2인 가구 위한 ‘간편식 명절선물’ 선배

### | 신세계백화점 |

#### 곰탕·고기전 등 간편 조리식품

신세계백화점은 설 명절을 맞이해 1인·2인가구와 명절 음식 초보 고객들을 위해 처음으로 가정 간편식 선물세트를 내놓는다.

신세계는 명절 음식 요리가 아직 낯선 주부와 1인가구 등 한우, 굴비, 갈치, 멸치 등 식재료 원물보다 간편 가정식 메뉴가 편한 고객들을 위해 전 점포에 설 특설매장을 열었다.

신세계는 올 설에 가정 간편식 선물세트를 찾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곰탕, 육개장, 고기전 등 총 8개 품목, 1만세트를 준비했다.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올반 브랜드의 간편식 선물세트가 대표적이다.

진한 곰탕, 북어 해장국, 청국장, 맛김치 등 총 9가지 인기 국과 탕, 반찬을 구성해 1인가구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만든 ‘올반키친 가족한상 세트’와 고기전, 육즙가득 왕교자, 떡국떡 등 명절 요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구성된 ‘올반키친 명절한상 세트’를 선보인다.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전통 죽과 스프로 구성된 설 선물도 나왔다.

전북 삼계죽부터 마스카포네 크림죽까지 업선한 재료로 만든 라쿠치나 프리미엄 죽 세트, 한우 영양죽, 단호박 수프, 토마토 수프 등 죽과 수프를 함께 구성한 라쿠치나 죽·수프 혼합세트가 대표 상품이다.

버터마요 간장, 카레간장, 계란에 뿌리는 간장 등 간편하게 조리해도 맛있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간장으로 구성된 ‘만능간장 선물세트’도 1인 가구를 위한 명절 선물로 제격이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가정 간편식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진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상무는 “최근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개인 수요 증가로 전통적인 선물에서 벗어나 받는 사람을 고려한 선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처음으로 가정 간편식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평창 특산물로 구성된 7개 품목 3400세트를 새롭게 구성해 선보였다. 평창 지역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로 사육해 육질이 고소한 평창한우 선물세트를 2가지로 구성, 30만원의 ‘강원 평창 한우 만복’을 150세트 한정으로 22만원으로 선보이는 ‘강원평창 한우 다복’은 200세트 한정으로 출시했다. /김유진 기자